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부 45

월남사

고종21년(1234) 봄.

월남사에서 병을 다스리던 혜심(慧諶)은 마침내 눈을 감았다. 보조 지눌의 제자였던 혜심은 수선사와 지리산 단속사를 오가며 정진하다가 월등사로 와서 사찰이름을 월남사로 바꾼 뒤 입적했던 것이다. 혜심이 입적하자, 월남사에 가장 먼저 찾아온 승려는 그의 제자 쌍봉사 주지 법우(法祐)였다. 법우가 월남사에 왔다는 사실은 탐진현의 큰 소식이었다. 그의 속가 아버지가 무신정권의 최고 실세 최우(崔瑀)였기 때문이었다.

법우의 속명은 최만전(崔萬全). 최우의 차남이자 최만중(崔萬宗)의 친동생이었다. 최우는 두 형제를 개경에서 멀고 먼 수선사(修禪社, 송광사)로 출가시켰던 것이다. 나라의 병권(兵權)을 김약선(金若先)에게 맡기려 했으나, 두 형제가 반발할까 두려워서였다. 김약선은 최우의 사위였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내밀한 이유는 두 형제를 수선사 혜심에게 출가시킴으로써 훗날 후계를 둘러싼 갈등을 미리 해소하고자 그랬다. 반면에 혜심 또한 스승 보조국사 지눌이 결성한 수선사에 대한 무신정권의 지원을 얻고자, 양민들이 건달이라고 피했던 두 형제를 제자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법우는 스승 혜심을 다비한 뒤에도 월남사에 남았다. 법우는 왕명을 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월남사 주지를 맡았다. 그러자 혜심에게 갔던 최우의 지원이 월남사로 향했다. 최우는 혜심이 머무른 수선사나 단속사에 차나 향, 약, 진귀한 음식과 귀한 과일에 이르기까지 보시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승복은 물론이고 발우와 다기까지 때를 맞춰 끊임없이 보내주었던 것이다. 무신정권의 실세들이 월남사를 자주 찾으면서 사세는 날로 번창했다.

그런데 최우는 친히 월남사에 내려올 형편은 못되었다. 몽골 침입에 대비해서 한시라도 강도성(江都城)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 일찍이 추밀원부사에서 고종6년에 아버지 최충헌이 죽자 그 뒤를 이어 교정별감(校正別監)이 되었고, 3년 뒤에는 참지정사와 이병부상서(吏兵部尙書) 및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가 되어 집권자의 위상을 확실히 했는데, 고종을 움직여 의주(宜州, 함남 덕원)·화주(和州, 함남 영흥), 철관(鐵關, 철령) 등 요충지에 성을 쌓았던 것이다. 이윽고 고종19년에는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 천도를 주청하고 나서 녹봉거(祿俸車) 1백대로 왕실의 가재를 강화로 옮기고 개경 사람들을 피난시킨 뒤, 고종으로 하여금 천도를 단행하게 했다.



따라서 최우는 자신의 아들 범우(만전)가 있는 월남사에 직접 올 수 없었고, 대신 그의 최측근들이 월남사를 오갔다. 그중에 교정별감 김약선은 범우의 속가 매형이기도 했다. 김약선이 월남사에 오자, 탐진현 수령, 대구소 향리, 칠량소 향리, 토호들이 한결음에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도강현 감무만 오지 않았다. 그는 범우 모친이 기생이라는 것을 알고 범우를

무시했던 것이다.

김약선이 월남사에 온 날 범우는 출타 중이었다. 단속사로 가서 속가형인 만종을 만나고 있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범우는 병중이었으므로 단속사에 오래 있지는 못할 형편이었다.

“교정별감 나리, 탐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진현 수령이 이 고을 향리들을 데리고 와서 환영해 주니 고맙소.”

“월남사에 오신 별감 나리를 뵙고자 저희들이 어찌 달려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요.”

“주지스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절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오.”

“듣기로는 만종선사를 뵈러 갔는데 내일이면 오신다고 합니다요.”

“주지스님께서 고생이 많지요?”

“탐진 사람들이 한때 백제에 대해 미련이 많았습니다만 진각국사 혜심스님께서 오시고 또 범우선사께서 이곳에 계시어 잘 해결되었습니다요.”

탐진 수령은 탐진, 고안, 정안 등의 호족들이 한때 망한 백제를 부흥하고자 했지만 진각국사 혜심이 월남사에 주석하고, 또 뒤를 이어서 그의 제자 범우가 절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기세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원래 서남해안에 인접한 호족들에게 백제에 대한 미련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일찍이 무위사에 선각국사 형미가 왕건의 지원을 받아 주석한 것도 호족들을 선무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이다.

김약선은 진각국사 혜심이 중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왜 지리산 단속사에서 월남사로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장인 최우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우 역시 서남해안 호족들이 백제에 대한 향수가

많았으므로 실세승려를 파견하여 불온한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최우는 강도 궁궐에 머물며 몽골과 전쟁 중이면서도 월남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자신은 내려갈 수 없었으므로 김약선 같은 측근들을 자주 보냈던 것이다. 탐진 향리들과 토호들은 김약선을 면담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개경의 벼슬아치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탐진 청자를 들고 와 바쳤다. 토성 호족인 김씨가 먼저 노비 두 사람을 시켜 대구소에서 구한 청자의자 두 개를 들고 와 김약선 앞에 놓았다. 김약선은 난생 처음 청자의자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이런 모양의 청자기물은 처음 보았소.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요?”

“나리께서 정원에 놓고 마님과 함께 앉으시든 의자가 되고, 실내에서 귀한 물건을 놓으시든 받침대가 되겠지라우.”

“받침대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겠소.”

“지 생각도 그렇습니다요. 굳이 두 개를 가지고 온 것은 나리와 마님께서 의자로 사용하시라고 그랬지라우.”

“고맙소.”

“나리, 심축드립니다요.”

“뫼을 심축한다는 말이요?”

“따님께서 태자비가 되셨다는 희소식을 들었지라우. 다시 한 번 심축 드리겠습니다요.”

“나는 내가 사용하기보다는 이 의자를 태자에게 보내겠소. 그러면 나의 딸 태자비와 함께 앉지 않겠소?”

“태자 저하와 태자비를 애지중지하시든 나리 맘을 알겠습니다요.”

김약선은 매우 흡족하여 두 개의 청자의자를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의자의 크기는 두 개가 서로 달랐다. 남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키가 크고 작은 손님을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물론 손으로 성형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었다. 청자의자의 높이는 어른 손으로 두 뼘 반 남짓, 방석 같은 몸체 상단 넓이는 한 뼘 반 정도 되었다. 그런데 크기보다는 몸체의 투각과 음각한 문양들이 격조가 있었고, 몸체 안을 비워 무게를 가볍게 한 도공의 의도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도공은 어디에 살고 있소?”

김 족장이 정확히 모르는 듯 우물쭈물하자 대구소 향리가 대답했다.

“상감청자로 명성을 올려부렀던 탐진 사당마실에서 살고 있습니다요.”

“이런 도공이라면 강화로 불러들여 가마를 지어주고 싶소.”

“나리, 강화에서는 좋은 청자가 나오기 심듭니다요. 기술이 옹어서가 아니라 흙이 탐진 것보다 못허기 따문입니다요.”

“허허허. 그렇다면 별 수 없소.”

김약선은 또다시 눈길을 청자의자로 돌렸다. 앉는 자리 바로 밑은 인동초 덩굴(唐草文)을 음각해 빙 둘러고, 그 밑 볼록한 몸체 부분은 타원형 고리를 일정하게 겹쳐서 투각으로 처리했으며, 그 밑은 음각한 국화꽃 무늬가 띠를 이루었으며, 굽다리 부분은 연화문을 음각했는데 발색은 최상급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자로 의자를 만들겠다는 기발한 발상과 몸체 반 정도를 투각하고 안을 텅 비워서 무게를 줄인 실용성이 뛰어난 점은 도공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청자의자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아닙니다요. 나리께서 월남사에 내려오신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요.”

“탐진 사람들이 이처럼 의리가 있고 정이 많은지 몰랐소. 그러니 나는 의자 값을 내고야 말겠소.”

김약선이 손을 들자 멀찍이 뒤에 있던 군관 두 명이 달려왔다.

“금 20냥을 가져오너라.”

“예, 별감 나리.”

“나리, 저는 탐진에 사는 김씨를 대표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제 장사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요.”

“김 족장의 뜻을 어찌 모르겠소.”

“그런게 받아주셔야 합니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오. 나는 청자의자 값을 지불하겠으니 김 족장은 내 성의를 받으시오. 대신 이와 똑같은 청자의자를 만들어 월남사 범우스님께 드리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소?”

“아이고메, 말문이 맥혀됩니다요.”

김약선이 교정별감에 오른 것은 최우가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최우는 본처 사이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으므로 김약선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 자신이 통치하기 위해 만든 교정도감의 별감으로 승진시켜 주었던 것이다. 만종과 만전은 기생 서련방 사이에서 난 아들이었으므로 서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김약선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출가를 시켜버렸던 것이다.

칠량소 향리도 구름무늬가 상감된 청자베개를 선물하자, 탐진에서 온 하씨 족장은 청자항아리를, 최 족장은 청자주병을, 정 족장은 청자주전자를, 조 족장은 청자향로를, 도강에서 온 황 족장은 청자합을, 임 족장은 청자대접을 바쳤다. 그런데 김약선은 탐진의 김 족장의 경우처럼 받기는 하되 값을 치르면서 반드시 월남사에 똑같은 것들을 보시하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탐진현 수령은 청자투각붓꽂이를 바쳤다. 수령의 선물에 김약선은 매우 흡족해했다. 김약선은 최우의 측근들 가운데 유일한 문신이였기 때문에 연적 같은 문방구를 몹시 좋아했던 것이다. 장방형 붓꽂이(筆架)는 아주 귀하게 보였다. 길이는 어른 손으로 한 뼘보다 조금 길고, 높이는 어른 손가락 네 마디 정도 되었다. 그런데 조각과 투각이 정교했다. 상단 양쪽에는 용머리가 밖으로 향해 있고, 붓을 꽂을 수 있는 구멍 세 개가 뚫려 있는데, 구멍 부근에는 국화꽃무늬가 음각으로 처리돼 있었다. 빛깔은 옅은 청록색으로 빙얼은 없었다.

“이 필가는 참으로 정교하오.”

“두 마리 용은 서실의 액운을 막아줄 것입니다요.”

“다시 말하지만 탐진, 도강 사람들은 예의와 의리가 있소. 지방에만 있기에 아까운 인재들이오. 나는 강화로 올라가 그대들을 천거할 것이오. 강화에 올라온다면 그대들은 더욱더 가문을 빛낼 것이오.”

“말씀만 들어도 감격시럽습니다요.”

김약선은 금 80냥을 가져오게 하여 선물을 가져온 이들에게 모두 10냥씩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김약선에게 자신들이 가져온 청자기물을 다시 만들어 월남사 주지 범우에게 보시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이 떠난 뒤 김약선은 비로소 경내 전각을 돌아다니며 참배했다. 월남사는 큰 사찰은 아니었지만 전각들이 단정했다. 전각 외벽 하단은 청자전이 붙어서 정갈했고, 전각과 전각 사이의 마당에도 청자전이 깔려 있어 신발에 흙이 묻지 않았다. 그리고 월출산 바위산자락이 뒤에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마음이 편안해졌다. 김약선은 사미승을 불러 인월대를 찾았다. 혜심의 시 <인월대>는 문신들이 찾자리에서 읊조리는 명시였다.

“인월대가 어디인가?”

“바우산 으디에 있다는디 잘 모르겠어라우.”

“주지스님은 아시겠지.”

“예, 널 주지스님이 오신께 알 수 있을 것입니다요.”

“알았으니 가보게.”

김약선은 혜심이 지은 시 <인월대>를 외웠다.

우뚝 솟은 바위산은 몇 길인지 알 수 없고
그 위 높다란 누대는 하늘 끝에 닿아 있네

북두로 걸어 온 은하수로 밤차를 달이나니
차연기는 싸늘히 달 속 계수나무를 감싸네.

巖叢屹屹知幾尋
上有高臺接天際
斗酌星河烹夜茶
茶煙冷鎖月中桂

국자처럼 생긴 북두로 은하수를 걸어 밤차를 달이는데, 차 연기가 달 속 계수나무를 감싼다는 혜심의 시였다. 병중에도 혜심은 월남사에서 인월대까지 올라가 탐진 차를 마셨음이 분명했다. 그만큼 차를 즐겨 마셨는데, <인월대>는 당나라 시선(詩仙) 이백의 상상력을 뛰어넘은 우주를 희롱하는 대선사의 시라고 김약선은 부러워하곤 했던 것이다.

혜심이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사에 갔던 이유는 화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종이 단속사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온 까닭이었다. 지방관들은 만종이 두려워서 조사하지 못했다. 최우의 장남인 만종이 양민들의 곡식을 빼앗을 때는 합법을 가장했던 것이다. 경상주도(慶尙州道)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도한 일이었다. 만종이 춘궁기 때 곡식을 민가 양민들에 꾸어주고 가을이 되면 재빨리 무뢰승((無賴僧)으로 하여금 이자를 붙여 가혹하게 징수했다. 양민들은 수확한 곡식을 만종의 무뢰승에게 모두 빼앗기고 관에 조세마저 내지 못했다.

경상도 안찰사가 최우를 찾아가 전후사정을 보고했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몽골이 남쪽까지 쳐들어온다면 양민들이 그쪽에 가담하는 반란을 걱정할 정도였다. 다행히 아직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법우가 급히 만종을

만나 양민들이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받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만중은 자신에게 허물이 없다며 거절했다. 범우는 깊어진 병 때문에 다시 월남사로 향하고 말았다.

‘출가 전에도 무뢰배와 어울리며 자신의 서출운명을 탓하더니 그 습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나 역시 그랬었지.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놈을 보면 가만 두지 않았지. 몽둥이로 죽지 않을 만큼 패주었지. 지금도 나에게 악행의 습이 남아 있을까.’

다음날 오후.

범우는 월남사로 돌아왔다. 사미승이 달려와 김약선이 와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범우는 반갑지 않은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다. 모시고 주지채로 오너라.”

범우는 주지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서 기다렸다. 이윽고 김약선이 사미승을 따라 오더니 범우를 보고 말했다.

“처남 스님 잘 있었는가?”

“속가의 연을 끊고 스님이 됐으니 범우라고 불러주세요.”

김약선은 충격을 받은 듯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능청맞게 말했다.

“아이고, 선사가 되신지 몰랐습니다. 별고 없으십니까?”

“별감 거사님, 오랜 만입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절을 같이 했다. 김약선은 범우가 왜 자신을 보고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순간적으로 짐작했다. 장인인 최우가 자신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만종과 만전 두 형제를 수선사에 출가시켜버렸던 것이다. 범우가 말했다.

“별감 자리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고 말고가 어디 있겠소. 아버님께서 도와달라고 하시니 잠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뿐이지요.”

“아, 그러시군요. 아버님은 강녕하십니까?”

“몽골 대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준비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아버님께서서는 왜 강화천도를 주장하셨습니까? 몽골군은 압록강을 건너 군사입니다. 강화바다를 건너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몽골군이 해전에 약해서 강화천도를 했다는 것은 그들을 너무 얕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몽골군이 강화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 스님께서서는 병법에도 능하시군요.”

“아닙니다. 출가 전에 병서를 조금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김약선은 범우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서늘했다. 그에게도 통치술에 능한 최우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스님께서서는 아버님께서 왜 강화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화 마니산에는 단군 제단이 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도 받고, 단군 조상님에게 의지하겠다는 것이 아버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단군은 국조(國祖)이시니까요.”

“스님의 혜안에 놀랄 뿐입니다.”

김약선은 월남사에 있으면서도 강도의 일을 환히 보고 있는 범우에게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였다. 범우는 월남사 주지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만한 큰 그릇임을 직감했던 것이다. 김약선은 속가 매형이었지만 범우 앞에서 자세를 낮추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스님.”

“다 지나간 일입니다. 월남사에서 내 할 일이나 잘하고 있겠습니다.”

“스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습니다.”

“수선사 2세이자 스승이신 진각국사비를 월남사에 세우는 일입니다. 영골을 봉안한 부도는 수선사 옆 광원사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가 없습니다.”

“강도에 올라가서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김약선은 탐진현 수령과 향리들이 월남사에 청자를 보시하겠다는 약속을 자신과 했다고 범우에게 알려주었다. 다만 도강현 감무 박장원만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범우는 마음속으로 박장원을 괘씸하게 여기면서 김약선에게 할아버지 최충현도 탐진 청자를 좋아하셨다며 강도의 문신과 무신들이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김약선은 범우와 오해를 풀었다는 것에 만족하며 조운선을 타고 강화로 올라갔다.

그런데 김약선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다. 최우의 진양부(晉陽府) 안에 있는 시녀들을 망월루(望月樓)와 모란방(牧丹房)에 불러놓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곤 했던 것이다. 이에 그의 아내가 질투한

나머지 아버지 최우에게 찾아가 “저는 집을 버리고 비구니가 되겠습니다.”라고 읍소했다. 그러자 최우는 즉시 김약선과 사통한 시녀들 및 그들을 붙여준 자를 섬으로 유배 보내고 망월루와 모란방을 헐어버렸다.

분개한 김약선은 아내가 사내종과 간통한 사실을 터뜨리려고 했다. 김새를 눈치 챈 그의 아내가 먼저 손을 썼다. 김약선에게 누명을 씌워 참소했다. 결국 최우는 한때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김약선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한참 뒤에야 최우는 자신의 딸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간통한 사내종을 죽이고 딸은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 최우는 김약선에게 미안했던지 장익(莊翼)이라는 시호를 추증했다.<계속>